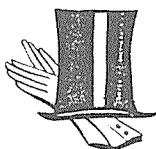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

국

(2)



배순덕
화가·호는창랑

‘타라’라는 호텔에 숙소를 정하고 일정 틈틈이 스케치를 했다. 틈만 나면 일행을 빠져나와 거리를 쏘다니는 통에 눈총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내게는 여기저기 다니는 즐거움이 훨씬 더 컸다.

돌아다니면서 본 런던은 모든 것이 뿌우연 느낌이었다. 템즈강에서 피어오르는 안개 때문에 뿌우영고 오랜 역사와 전통이 도시 구석구석에 먼지처럼 내려 앉아 뿌우영다. 찬란했던 영국의 위용은 이제 빛 바랜 고성처럼 보였다. 그렇더라도 낡은 것이 곧 나쁜 것은 아니었다. 낡은 옷이 새 옷보다 편안함을 주듯이 그들에겐 오랫동안 몸에 배어 온 그들만의 질서가 있었다. 단편적으로, 노인에 대한 존대와 공경이 그러했고 상대에게 양보할 줄 아는 마음의 자세가 그러했다.

마차가 다니던 길을 개조한 협소한 도로에는 중앙선이 없이도 차가 잘 달렸다. 그렇게 좁은 도로에서도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는 이유를 안내원은 한마디로 ‘양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좁은 길에서 차가 마주치면 서로가 양보를 하느라 일단 멈춤을 했다가 지나간다. 노인이 버스를 타고 내릴 때에는 안전하게 타거나 내릴 때까지 버스가 떠나지 않는다. 내게는 그것이 아름답게 보였다.

오랜 전통의 고집으로 경제가 어려워져 여왕의 존폐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90% 이상이 존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어려워도 여왕은 존속해야 한다’ 얼마나 멋진 대답인가? 그것은 곧 전

통에 대한 존경이고 사랑이다. 자신들이 지켜오던 것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는 그들만의 자존심과 용기이기도 하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에드워드 참회왕이 천년 전에 지은 것이다. 시의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쪽의 대사원이란 의미로 웨스트민스터란 이름이 붙었다. 1066년 노르망디공 윌리엄의 대관식을 시작으로 수세기에 걸쳐 왕의 대관식이나 장례식, 그리고 결혼식 등이 그곳에서 거행되었다. 가늘고 긴 색색의 스테인드글라스가 가득 채워져 있는 뾰족한 고딕식의 이 건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찰스황태자와 다이애너비도 결혼식을 했었다.



▲ 원저성. 런던에서 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원저시에 있다. 역대 왕들의 권력과 영광의 날들을 엿볼 수 있는 위풍당당한 석조성이다.

사원 안에는 수 많은 관이 있다.

왕과 왕족과 위인과 여러 분야의 명사들의 묘와 기념비가 있으며 세계대전 때의 무명용사의 묘도 있다. 사원의 가장 안쪽 헨리 7세의 예배당에는 런던탑에서 살해된 어린 에드워드 5세와 비극의 여왕 메리의 무덤도 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길을 옮길 때마다 여기저기에 가로, 세로,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수도 없이 번잡스럽게 놓여져 있는 여러 모양의 관들을 들여다보며 나는 대영박물관의 미이라를 떠올렸다.

죽음은 결국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든다. 왕도 신하도 백성도 그리고 흑인이나 백인도 죽고 나면 모두가 똑같이 한뼘의 공간만을 차지할 뿐이다. 다만 그 사람이 남긴 생전의 족적이 그의 이름을 역사 속에 오래 살아남게도 하고 죽음과 함께 땅속에 묻어 버리게도 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다.

런던 근처에서 영국 왕실의 권력과 영광을 엿볼수 있는 또 하나의 성은 원저성이다. 런던에서 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템즈강가의 원저시에 자리잡은 원저성 역시 900여년동안 영국 여왕의 성으로 군림해왔다. 성안의 조지예배당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처럼 왕실의 무덤으로 되어 있다.

깔끔하고 조용한 마을을 지나 성안으로 들어서면 줄지어 밀려 들어가는 관광객들이 눈에 띈다. 왕실의 성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는 이 성안에는 성의 중앙에 있는 라운드타워(Round Tower)를 비

롯하여 윈체스터타워, 조지 4세타워, 빅토리아타워, 헨리3세타워 등등 넓은 성담계 여기저기에 많은 탑이 있다.

그러고도 성안은 한 없이 더 넓다. 그 안에는 사진에서만 보아왔던 붉은 상의에 검은 바지, 길다란 모자를 쓴 근위병도 있고 왕실에 관계되는 물건들을 전시하는 곳도 있고 관광객에게 기념품을 파는 곳도 있었다. 여왕이 그 곳에 체재중일 때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어퍼포드 구역도 있었으나 내게는 그것이 거부감을 일으키거나 왕실의 권위 때문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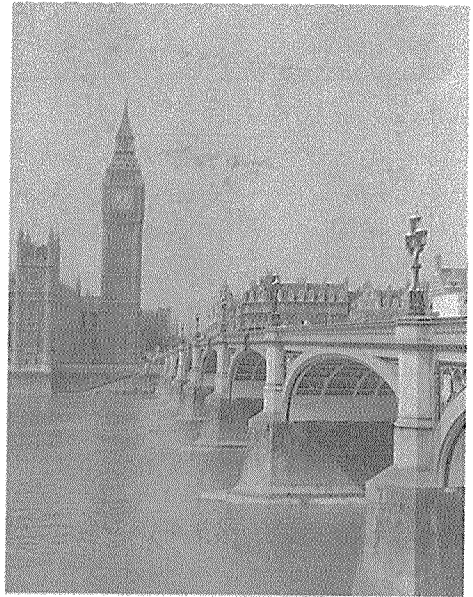
지금은 중국땅인 집안(集安)의 고분벽화 속에 살아있는 웅비하던 고구려인의 역사가, 일천오백년 전에는 그 곳이 우리의 땅이었음을 증명해주듯이, 지금 런던이 위치한 지리적 조건이 그 옛날 영국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런던은 로마인이 자신들의 편의에 의해 자리잡은 시티(The City)가 그 발상지임을 증명해 보인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건가?

지구가 둥글듯이 역사 또한 둥글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구는 둥글어서 어디에도 영원한 낮이나 영원한 밤만이 존재하는 나라는 없다. 그런데 역사는 지구보다 더 둥근 것 같다.

희드로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다 보았다.

전통과 긍지가 넘치는 영국의 영광을 담은 윈저성이 윈저시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뚜렷한 모습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그 모



▲ 템즈강. 템즈는 오랜 옛날에 로마인들을 런던 땅으로 안내한 강이다. 그러나 영국인들에게도 템즈는 위대한 강이다. 런던을 만든 것도 왕의 땅을 만든 것도 템즈이기 때문이다.

습은 한 낮의 햇살아래 빛바랜 깃발처럼 펼쳐졌다. 그 깃발 뒤에 함께 나부끼는 영국의 역사- 고대 로마의 식민지를 거쳐 이룩된 잉글랜드 왕국, 노르만디왕조, 윈저 왕조, 왕위계승 전쟁과 절대주의왕정, 무혈혁명, 권리장전, 개인의 자유와 의회주의, 그리고 산업혁명과 제국주의, 죄없는 남의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로 그들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서슴없이 약탈해 왔던 영국의 이면이 그 곳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 영국의 역사는 변함없이 돌고 있는 것이다. ㉞